

생계비 부담 가중 취약계층 지원…정부, 8천억 ‘민생대책’

닭고기·분유·원두 등 ‘무관세’
농·축·수산물 할인 500억 추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자 정부가 8,000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 대책을 내놔다.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 한편 수입 식료품에 붙는 관세를 낮추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확대해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거센 공급발(發) 압력을 중심으로 엄중한 물가 여건이 계속되고 있어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8,0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에 약 4,800억원, 소고기·분유 등 식료품 할당관세 추가 지원에 약 3,300억원을 투입한다. 재원은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예산 이용·전용 등으로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500억원 추가로 늘린다. 1인당 1만원 한도로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수입 소고기, 닭고기, 분유, 커피 원두 등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가 부담도 낮춘다. 저소득층 160만명(118만가구)이 혜택을 받는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오는 10월부터 17만

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올리는 데 153억원을 투입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은 10kg당 7,900원으로 연말까지 3,000원 낮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대한 기저귀·분유 단가는 각각 월 7만원, 9만원으로 6,000원·4,000원씩 인상한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주는 생리대 지원비는 월 1만3,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문화·예술 활동에 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액은 11만원으로 1만원 늘리고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강좌이용권 금액도 월 9만5,000원으로 1만원 올린다. 한부모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오는 10월

부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2~58%인 한부모가족에도 월 1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한다.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복 지원도 8월부터 허용한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돌봄 지원 기간은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도 올린다.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만 18세 이상 보호 종료 청년에게 주는 자립수당은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위기 청소년 생활지원금은 최대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린다. 식료품 외 기타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한다. 택시·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리터당 약

12원) 감면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어민 유튜브 부담 완화를 위한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금액도 242억원 늘린다. 디딤돌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체증식분할 등 상환방식을 대출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도 연장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가 많이 쓰고 쉽게 체감하는 품목의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 것 같다”며 “특히 농축수산물 부문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부산지회는 최근 부산시 해운대 영무파라드호텔에서 영·호남 벤처기업 교류회 및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제공

‘영·호남벤처기업교류회’ 재개

지방 벤처기업 발전 협력키로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부산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지역간 벤처기업 교류회를 최근 재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지난 8일 부산시 해운대 영무파라드호텔에서 벤처기업협회광주전남지회 김명술 회장, 부산지회 공동회장인 정종교 회장, 벤처기업협회 장구성 본부장, 지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20회 벤처썸머포럼’ 및 ‘영·호남벤처기업매칭데이’ 사전 답사와 함께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워크숍이 함께 진행됐으며 부산지회의 ㈜전진엔텍 방문 간담회, ㈜비온시아노베이터 김용수 대표의 특강, 벤처기업협회부산지회와 ‘상생협력 협약식’ 순으로 펼쳐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지역 벤처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아이

디어 및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발전 지원체계 구축▲기술교류, 정보교환, 판로모색, 사업 아이디어 도출 및 투자 활성화▲스타트업 창업, 멘토링 및 인큐베이팅 등 통한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이 담겼다.

이번 교류회에 참가한 지회장들은 “앞으로도 지역간 벤처·스타트업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광주·전남 및 부산을 교차로 방문해 교류회를 갖고 지방 벤처기업의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양 협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사업 발굴을 위해 분회 및 지역 유관 단체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농어촌공사, 올해 말까지 임대료 50% 감면

332개 업체 42억 혜택

내년까지 적용 받아

한국농어촌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 50% 감면 및 동결을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월 임대료 50%를 감면받고 다음 1년 간 동결된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332곳의 임대료 42

억 원을 감면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캐리어냉장, ‘미니 와인셀러’ 2종 신규 론칭

미니멀 가전 트렌드 반영

소형 모델로 8·12병 적재

와인셀러 듀얼 리뉴얼도

캐리어냉장이 미니 와인셀러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사진> 캐리어냉장이 새롭게 선보이는 ‘캐리어 미니 와인셀러’는 미니멀 가전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소형 모델로 8병·12병 적재 가능하다. 미니 와인셀러는 와인 종류에 따른 최적의 온도 설정이 가능한 전자식 온도 조절 장치와 냉기 전달 보온 능력,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특수 강화 유리 도어를 장착해 빛, 온도 등 외부환

경 변화에 취약한 와인 본연의 향미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펠터 기술의 반도체 냉각 방식을 탑재해 별도의 냉매 주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친환경적이며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도 최소화한다.

특히 용량 12병 모델의 경우 치즈나 하몽 등 패어링 푸드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탈착식 다용도 바구니도 포함시켜 ‘홈술’, ‘혼술’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고급스러운 홈 다이닝 경험도 선사한다.

캐리어냉장은 미니 와인셀러 신제품 출시와 함께 기존 제품의 리뉴얼도 진행했다.

리뉴얼 된 제품은 2가지 온도제어가 가능한 77병·112병의 중형 ‘캐리어 와인셀러 듀얼’ 2



종으로, 도어락을 제거해 기존 제품보다 향상된 접근성을 확보했다. /오지현 기자

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기업 지불능력 우선 반영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5.0%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주된 결정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회복하지 못한 지불 여력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높은 물가상승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근거에 따르면 물가상승을 온전히 영세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경제지표와 달리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렵고,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을 버티면서 늘어난 대출이 금리 인상으로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과 원자재 가격이 잇달아 급등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도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승현 기자



현대차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가 지금까지 출시한 현대차 역대 모델 중 가장 낮은 공력계수인 CD 0.21을 달성했다. /현대차 제공

아이오닉 6, 현대차 역대 최저 공력계수 달성

CD 0.21 현존 전기차 중 최상위

14일 부산모터쇼서 실물 첫 공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6가 지금까지 출시된 현대차 역대 모델 중 가장 최저 공력계수인 CD (Drag Coefficient) 0.21을 달성했다.

이와 같은 낮은 공력계수는 아이오닉 6의 우아하면서도 유려한 곡선의 스트림라인 실루엣 등 빼어난 디자인이 공기저항 감소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자동차의 공력성능은 ▲동력성능 ▲연료(전기에너지) 소비효율 ▲주행안정성 ▲주행소음(풍절음) 등 차량 성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품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며 전기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1회 충전으로 더 나은 주행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

이 치열해지면서 차와 공기역학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지는 추세다.

이런 추세에 아이오닉 6가 공력계수 0.21을 기록한 것은 현존하는 전기차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으로 주행거리 증가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6는 유선형의 심미적인 디자인에 공력 분야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기능적 설계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했으며, 이에 따라 현대차 역대 모델 중 최저 공력계수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보다 멀리 달릴 수 있는 기능적인 아름다움 구현을 목표로 수많은 연구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오는 14일 아이오닉 6 디지털 월드프리미어와 함께 세부 상품성을 공개하고 ‘2022 부산모터쇼’ 현장을 찾은 국내 고객들 앞에 아이오닉 6의 실제 모습을 처음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